

신한금융그룹 2020 ESG 하이라이트

FINANCE for **IMPACT**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금융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나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금융이 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죠?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궁금하다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대상을 떠올려보세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경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금융의 힘으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국가는 성장하며,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ESG¹⁾를 강조하는데,
ESG가 기업 수익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기
보다는 지금의 이익이 장기적으로도
확보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냉정하게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기업 평가기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¹⁾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평가하는 핵심적인 경영 지표로 최근 글로벌 국가/기관/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대두

신한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추진하며 신한 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 'FINANCE for IMPACT'를 신한 ESG의 원칙으로 정하고 3대 전략방향(친환경, 상생, 신뢰)과 5대 IMPACT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는 신한의 걸음은 ESG Way로 이어집니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동영상 시청하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 책갈피
- 목차
- 이전 페이지
- 참조 페이지
- 관련 사이트
- 동영상

신한은 그 길을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Contents



ESG WAY를 걷어가는 법

- 28 신한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 30 신한 ESG 구동체계

ESG WAY의 목적지

- 33 신한 ESG 목표 0·10·100
- 34 ESG Invitation Letter

HOW

SPECIAL REPORT

- 37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 38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 39 ESG 이니셔티브
- 41 TCFD 보고서
- 52 다양성 보고서
- 54 코로나19 대응
- 56 ESG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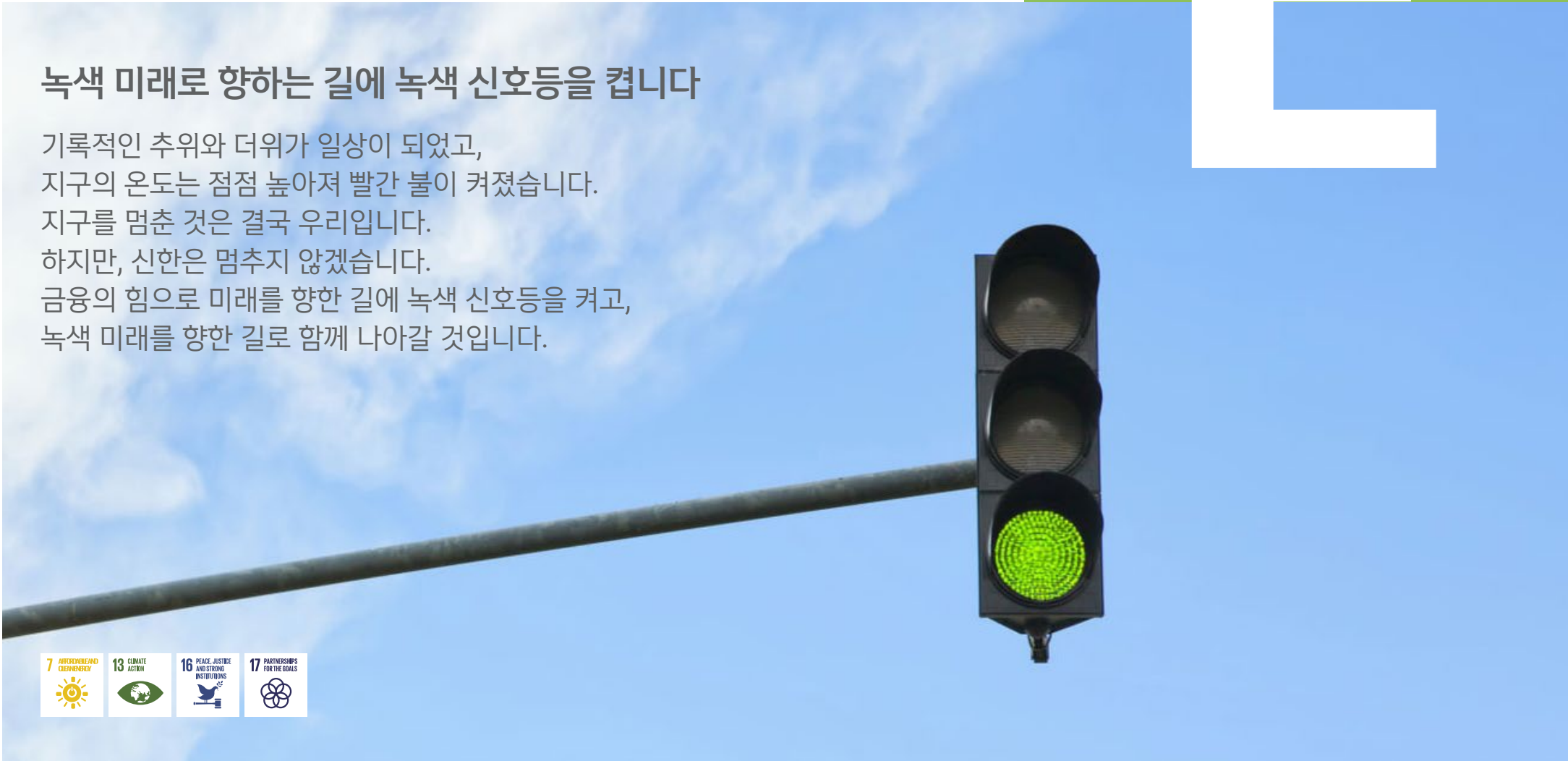
DESTINATION

Empowering a green future



녹색 미래로 향하는 길에 녹색 신호등을 켵니다

기록적인 추위와 더위가 일상이 되었고,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구를 멈춘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하지만, 신한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금융의 힘으로 미래를 향한 길에 녹색 신호등을 켜고,
녹색 미래를 향한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UN 회원국들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 이하로 낮추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¹⁾ 선언이 이어졌고,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기업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공시(TCFD²⁾)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해마다 최악의 기후변화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38°C를 기록했고, 호주 산불로 코알라 6만 마리를 비롯한 30억 마리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또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긴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2020년은 기상관측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³⁾

¹⁾ 탄소중립(Net Zero):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상쇄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²⁾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 협의체인 중앙안정위원회(FSB) 주도로 창설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이니셔티브
³⁾ 출처: 세계기상기구(WMO) 2020년 지구기후 잠정보고서
⁴⁾ ECO Transformation 20:20: 2018년 수립된 신한금융그룹 친환경 전략으로 2030년까지 자체 탄소배출량 20% 감축 및 20조 원 금융지원을 목표로 함

'Zero Carbon Drive'는 녹색 미래를 밝히기 위한 신한은행의 친환경 전략입니다. 이는 기존의 친환경 전략인 'ECO Transformation 20·20'⁴⁾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그룹 자체의 탄소배출량 감축은 물론, 고탄소 배출 기업고객의 저탄소 전환을 도움으로써 금융 자산이 배출해내는 탄소배출량의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11월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Zero Carbon Drive'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IMPACT 1

Zero Carbon Drive 제로 카본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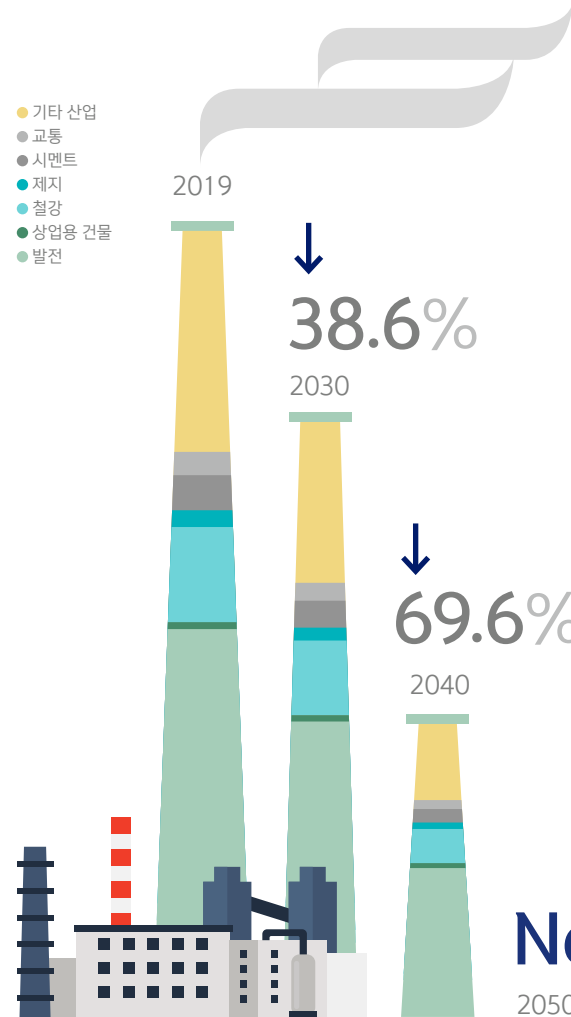
금융회사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탄소를 내뿜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금융회사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자금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개인이 이를 사용할 때 탄소가 배출됩니다. 신한은 투자하거나 빌려준 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친환경 설비로 바꿀 것을 권유하거나 환경 경영지표 공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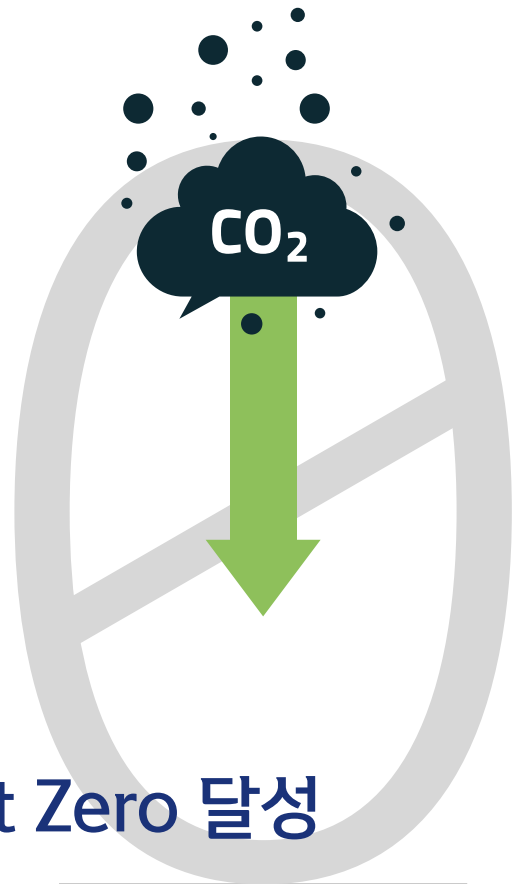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신한은 책임은 다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Zero Carbon Drive를 통해 과학적, 정량적으로 실행됩니다. 향후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SBTi¹⁾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 자체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6.2%, 2040년 88.2% 감축하여 2043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고,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²⁾의 탄소 배출량은 2030년 38.6%, 2040년 69.6%로 줄여 2050년에는 Net Zero를 달성하겠습니다.

Zero Carbon Drive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1,042개 회사의 탄소배출량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2018년 5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수립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토대로 신한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사회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12개 영역을 지정해 익스포저³⁾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를 평가해 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관리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SBTi SDA(부문별 탈탄소 접근법)을 적용한 2°C 시나리오 기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



¹⁾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기업이 기후과학의 권고기준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미래 저탄소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운영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설정한 목표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최신 기후과학과 일치한다면 '과학기반'으로 간주함

²⁾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회사가 투자 또는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 기업 구성

³⁾ 익스포저: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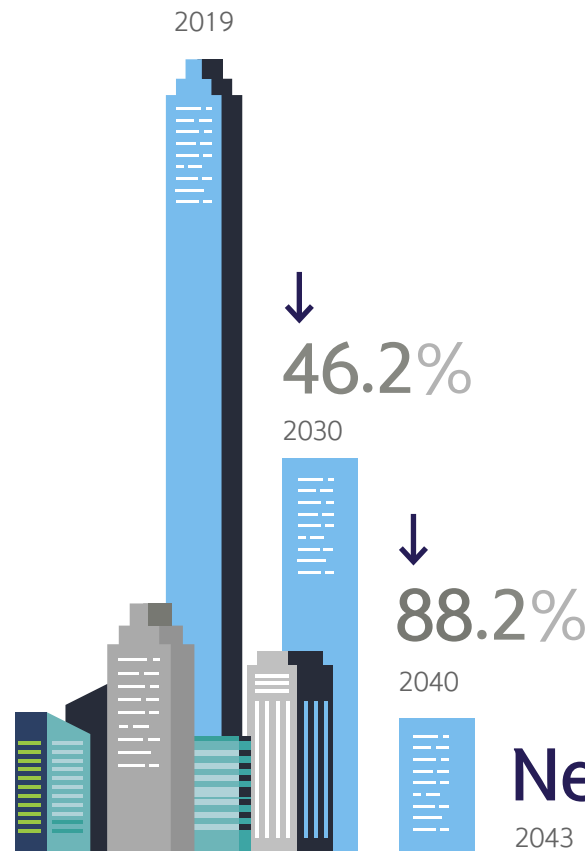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20년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이 적도원칙¹⁾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1,000만 달러 이상 PF와 5,000만 달러 이상 기업대출에 대해 환경·사회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한금융그룹은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 및 산업이 기존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대체할 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금융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친환경 대출과 투자를 통해 총 2조 6,773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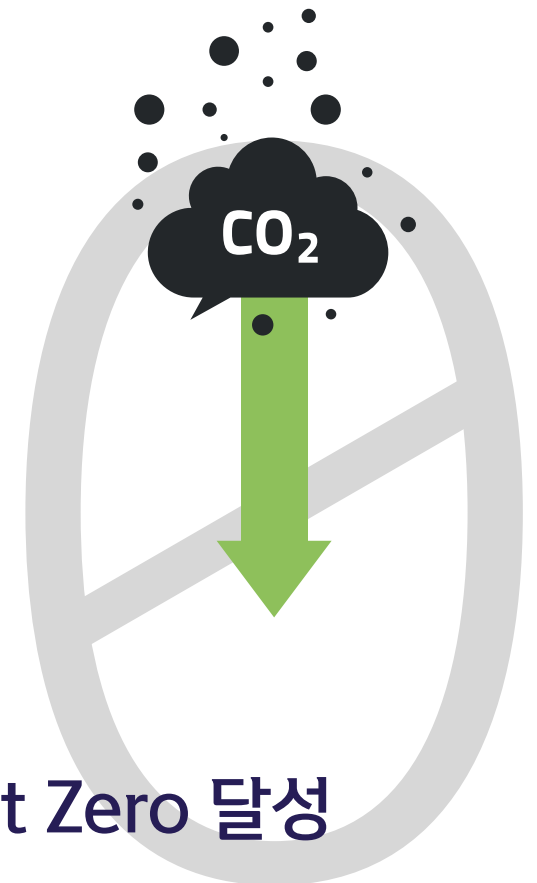
내일을 살아갈 세대에게 일상이 재난이 되는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절실한 시기,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금융에게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높임으로써
탄소 배출이 Zero가 되는,
미래 친환경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SBTi의 절대량 감축 접근법을 적용한 1.5°C 시나리오 기반
매년 4.2% 감축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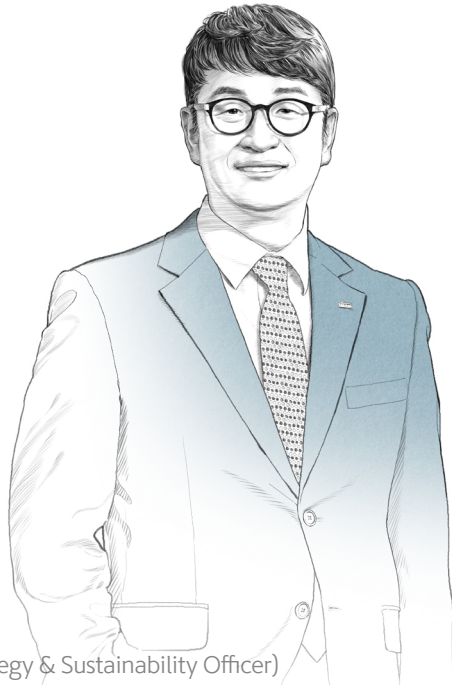
¹⁾ 적도원칙: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



보다 자세한 내용은 Special Report의 'TCFD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 없는(Zero Carbon) 세상, 지속가능금융의 힘으로 열어갑니다



박성현
신한금융그룹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UNEP FI 글로벌운영위원회 아시아태평양 Banking 부문 대표

Q

'Zero Carbon Drive'가 기존의 친환경 전략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A

내부 탄소배출량 측정과 관리를 넘어 국내 금융사 최초로 자산의 탄소배출량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 목표치를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것에 가장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과 관리의 역량 뿐 아니라 감축하려는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신한은 내부적인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향상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A

신한금융그룹은 대표적인 친환경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P¹⁾와 TCFD의 권고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올 해는 기업고객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UNEP FI²⁾ 글로벌운영위원회 아시아태평양 Banking 부문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금융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부문을 발굴하겠습니다. Zero Carbon의 목표가 저희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¹⁾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공개프로젝트): 영국의 비영리 국제조직으로서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탄소정보공개 플랫폼

²⁾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와 금융 부문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전 세계 300여 금융기관들이 ESG 경영 확대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 GSC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기획·승인하는 UNEP FI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Steering in the desirable way

모두가 꿈꾸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걸으면 닳아갑니다. 나에게 없는 상대의 장점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힘을 모으면 강해집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는 다다르지 못할 곳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힘든 이들에게 손 내밀고, 꿈 꾸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의 희망을 지켜냅니다.



인터브랜드¹⁾ 선정, 2020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애플과 아마존도 한때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이 이름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된 배경에는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한 금융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래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낯설다고 거부했다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했다면, 세상을 바꾼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혁신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꿈꿉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의 힘을 활용하여 돕고 있습니다. 미래를 품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투자하며 도전과 혁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한과 스타트업 모두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갑니다.



¹⁾ 인터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기업. 매해 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가치 평가를 실시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함

경제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도 하였지만, 많은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아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합니다.

‘Hope Together SFG’는 이러한 신한만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Start up}을 꿈꾸는 모든 기업과 개인들이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금융에 대한 바른 이해^{Financial literacy}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 이슈^{Group of community} 해결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Hope Together SFG를 통해 희망을 전합니다.

Hope.
Together.



IMPACT 2

Triple-K Project 트리플-K 프로젝트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은 변화 속에서 혁신적 흐름을 이어갈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10개의 유니콘기업¹⁾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 플랜인 'Triple-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orea Cross-Country

첫 번째 K는 전국을 누빉니다. 서울에 집중되었던 스타트업 인프라를 확장해 전국에 걸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Korea Cross-Country Plan' 아래, 2020년 신한금융그룹은 'S² Bridge(신한 스퀘어브릿지)'를 론칭하였습니다. 신한과 스타트업, 두 S의 협업을 의미하는 S² Bridge가 신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정립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 스페이스가 'S² Bridge: 서울'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등과 함께 조성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는 'S² Bridge: 인천'이 자리 잡았습니다. S² Bridge: 인천은 혁신 창업 거점인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스타트업 창업 초기부터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육성 플랫폼입니다. 대전에서도 대전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D-Bridge'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부산,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해당 지역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창업만큼 중요한 것이 그들의 성장, 즉 스케일업입니다. 신한은 전용펀드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 S² Bridge 인천과 대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펀드를 조성하였고, 향후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펀드를 시리즈로 추가 설립하여 각각 최대 500억 원,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 퓨처스랩 전용펀드인 '원신한퓨처스 펀드'를 1,2호 설립하여 250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을 넘어 사무공간 및 복지시설 무상임대, IR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폭넓은 유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¹⁾ 유니콘기업: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



2020 신한금융그룹 스타트업 컨퍼런스



Korea Cross-Countr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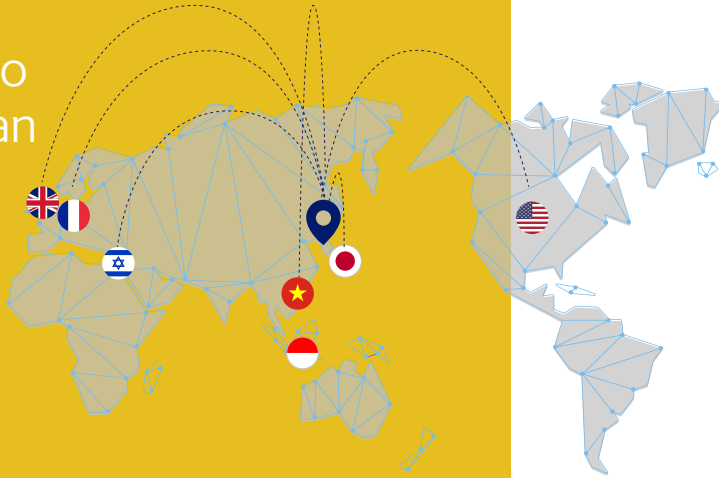


S² Bridge: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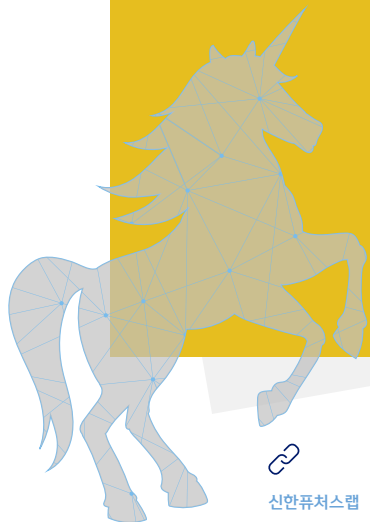
[S² Bridge: 인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Korea to Globa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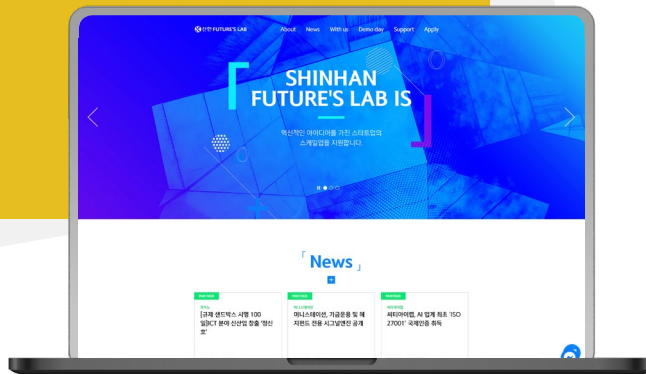


S² Bridge: 서울

K-Uncorn Project



신한퓨처스랩



Korea to Global Plan

두 번째 K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신한금융그룹은 'Korea to Global Plan'의 기조 아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퓨처스랩을 론칭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에 있는 해외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혁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연구해 스타트업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역량 등 무형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선진화·현지화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Uncorn Project

세 번째 K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갯짓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K-Uncorn Project 참여 계획'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신한이 키운 스타트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한퓨처스랩 동문기업을 대상으로 'S-Uncorn Program'을 실시하여 서류 작성과 IR 발표, 1:1 멘토링 및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스톤, 모바일통, 비주얼캠프, 코핀커뮤니케이션즈 4개 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 유니콘으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중 최고 성적을 거둔 센스톤은 인증 보안 분야의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5년 설립 이후 신한퓨처스랩의 지원을 받아 고속 성장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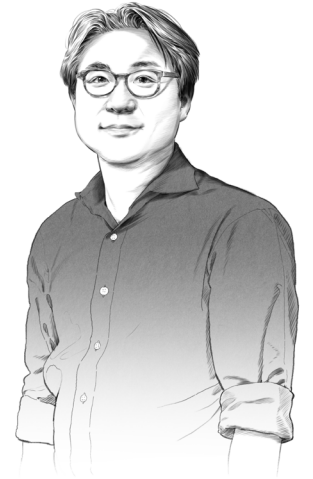
신한퓨처스랩은 신한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론칭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기 출범 이후 2020년 6기까지 총 214개¹⁾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2021년 7기부터는 친환경, 사회문제 해결 등 ESG 사업을 기반으로 기술력도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한과 함께 성장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¹⁾ 국내 166, 해외 48(베트남 40, 인도네시아 8)



S² Bridge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영화를 보기만 하다가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처럼, 음악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음악적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S² Bridge가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인천 스타트업파크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_____ 버시스 대표 이성욱



* S²Bridge: 인천 1기 중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션 멤버십 기업

Start-up

유니콘 기업이 되는 꿈, 지속가능금융의 힘으로 날개를 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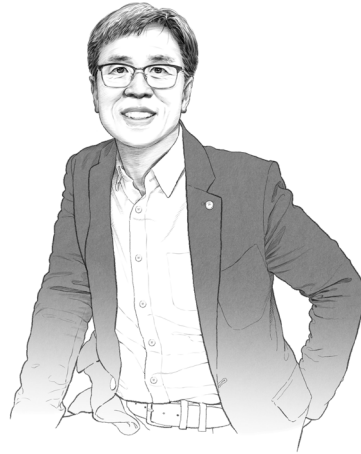
S² Bridge는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외국어 말하기 학습도구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 단계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자신 있으나, 투자자와의 연결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S² Bridge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멘토링 팀과 함께 회사의 성과평가지표를 어떻게 잡을지 논의 중인데,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지표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_____ 트이다 대표 장지웅

* S²Bridge: 인천 1기 중 시드 투자에서 시리즈A 투자까지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멤버십 기업

Scale-up

신한퓨처스랩이 특별한 이유는 스타트업이 가져올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죠. 저희 회사의 경우,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ATM 기기를 함께 개발하면서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없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넓은 시장에서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K-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비주얼캠프 대표 박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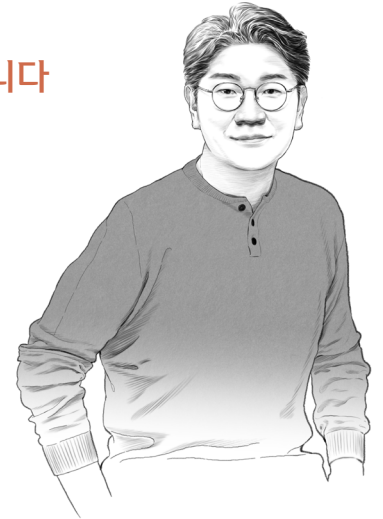
* 신한퓨처스랩 대표 기업이자 2020년 시행된 S-Unicorn Program 대상 기업

S-Unicorn Program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투자 유치, 멘토링, 협업, 네트워킹,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한퓨처스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S-Unicorn Program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1등 야기 유니콘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훌쩍 성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날아오르는 진정한 유니콘기업이 되겠습니다.

————— 센스톤 대표 유창훈

* 신한퓨처스랩 대표 기업이자 2020년 시행된 S-Unicorn Program 대상 기업



Support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우리 삶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게임 체인저들을 발굴하고자 전국 각지에 아주 특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² Bridge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스타트업은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브랜드홍보본부 팀장 / 신한은행 사회공헌부장 / 신한금융희망재단 부국장 박상용



스타트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게 됩니다.

신한의 벤처투자는 투자한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는 물론, 기업 상장(IPO)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을 창업한 적이 있어서 스타트업의 니즈에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세상에 꼭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일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면 무척 즐겁고 보람칩니다.

신한캐피탈 벤처투자부 선임 매니저 이현



IMPACT 3

Hope Together SFG 호프 투게더 SFG

신한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Start up, Financial literacy, Group of community'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슬로건, 'Hope Together SFG'는 오늘의 위기를 금융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지켜내겠다는 신한인의 의지입니다.

Start up 창업기업 육성

스타트업이 건강한 금융소비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그들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단단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저마다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에게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의 기회를 발견하겠다'는 각오로 2019년, 신한인 광고 시간과 지면을 국내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발한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50여 개 공모작 중 선정된 12개 사의 광고는 스타트업의 혁신성에 신한인의 진심이 더해져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2020년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기발한 소통을 꿈꾸며 새로운 브랜드 채널인 '기발한 프로덕션'을 오픈했습니다. 향후 기발한 프로덕션을 통해 스타트업, 청년, 소상공인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성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혁신경제성장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건강한 금융소비기업을 육성합니다.

Hope Together

S F G

START UP 건강한 금융소비기업 육성

- 스타트업 지원 (Triple-K 연계)
- 사회적기업 투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FINANCIAL LITERACY 금융 약자의 재정적 안정

- 청년층 부채·신용 회복
-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GROUP OF COMMUNITY 지역사회 이슈 해결

- 신한 네트워크 연계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지역사회 긴급지원 체계 구축



Financial literacy 금융약자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신용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신용회복 지원자와 저신용자가 취업 훈련을 받느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프로그램에 지원한 인원은 5,266명. 그 중 1,050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도약했습니다.

청년들의 무거운 짐도 나눠드립니다. 2019년부터 신한금융그룹은 한국장학재단, 코리아크레딧부로, 크레파스솔루션과 힘을 모아 '청년 부채 도탈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취업을 한 뒤에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관리나 직업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이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청년들은 약 300명. 삶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덜어내며 진짜 인생을 공부하는 청년들을 신한금융그룹은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대표적 활동으로 'One-Shinhan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가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를 주축으로 여러 그룹사가 힘을 모아 온·오프라인 통합형 금융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룹사별 업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전국 101개소에 달하는 신한꿈도담터¹⁾, 508개의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²⁾ 등의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¹⁾ 신한꿈도담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정 초등생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신한꿈도담터 구축사업 진행 중

²⁾ 아동과 청소년을 미래 주역으로 키우고자 하는 취지로 2010년 시작한 신한카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 2020년 말 기준 508개에 달하는 도서관을 설치하고 권장도서 62만 권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508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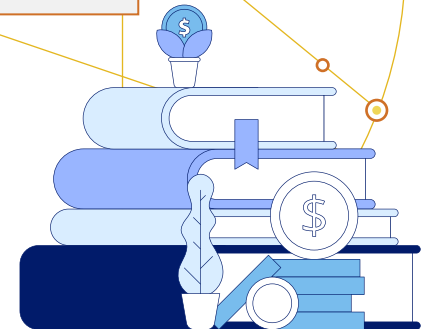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신한카드
아름인 디지털도서관

101 개소

신한꿈도담터



Group of community 사회이슈 해결

신한금융그룹이 지닌 지속가능금융의 힘과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에도 희망이 싹틔웁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마스크 20만 개를 배포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한 기부 캠페인, 'Hope Together'에는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며 더 많은 이웃들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모은 25억 원으로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한 생필품 키트 5,000개 및 의료용품 50만 개, 결식아동을 위한 Meal Box 15,000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와 희망도시락 각각 1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은 3차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연합모델 공모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닌 지속가능금융의 힘과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에도 희망이 싹틔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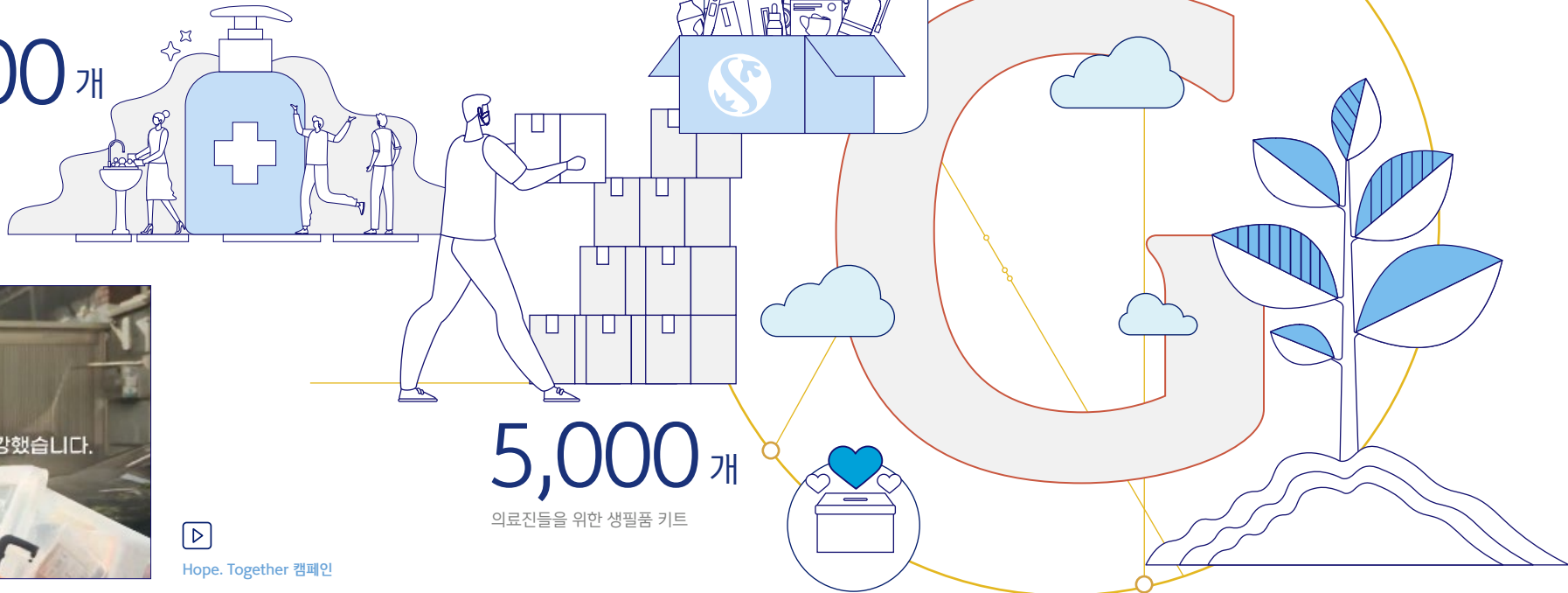


15,000 개

결식아동을 위한 Meal Box

500,000 개

의료용품



5,000 개

의료진들을 위한 생필품 키트



Hope. Together 캠페인

2020
SPECIAL ISSUE

코로나19 팬데믹, 지속가능금융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를 돌보지 않는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의 힘으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 활동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고객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 유동성 위기극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시행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였고, 신한카드는 자체 온라인몰인 '올댓쇼핑'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관을 신설하여 디지털을 통한 지원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신한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화 소셜본드 5억 달러 발행에 성공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경북 Hope Together 행사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며 우리 사회가 금융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댓쇼핑 전용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6월,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N.E.O Project'¹⁾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범 국가적 사업이자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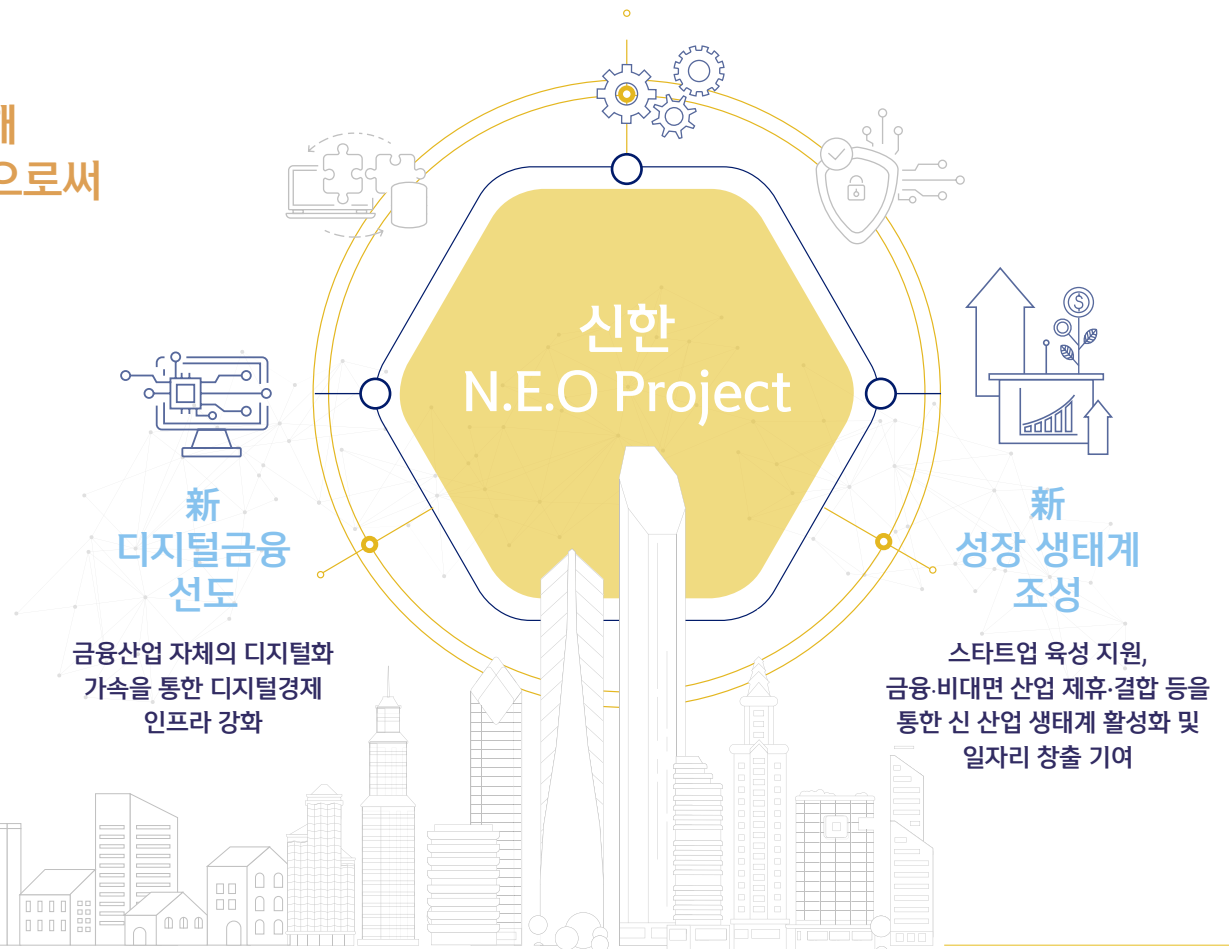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新성장산업 금융지원, 新디지털금융 선도, 新성장생태계 조성'을 핵심방향으로 하는 신한 N.E.O Project를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신한퓨처스랩,
N.E.O 르네상스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경제에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²⁾에 대한 직·간접 금융지원 확대

新 성장산업 금융 지원



¹⁾ Shinhan N.E.O Project: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는 신한 프로젝트

²⁾ 데이터 기반 산업,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관련 산업, 친환경 그린뉴딜 관련) 산업

Guiding toward sustainable change

G

신뢰로 함께 가는 길에 좌표를 제시합니다

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그 변화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기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멈춰 설 것인지는 바로 신뢰를 통해 결정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선한 노력에

신한금융그룹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이 함께 합니다.



금융은 고객의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뢰가 금융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임을 잘 알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신뢰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스스로의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고,
함께 하기 위한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IMPAC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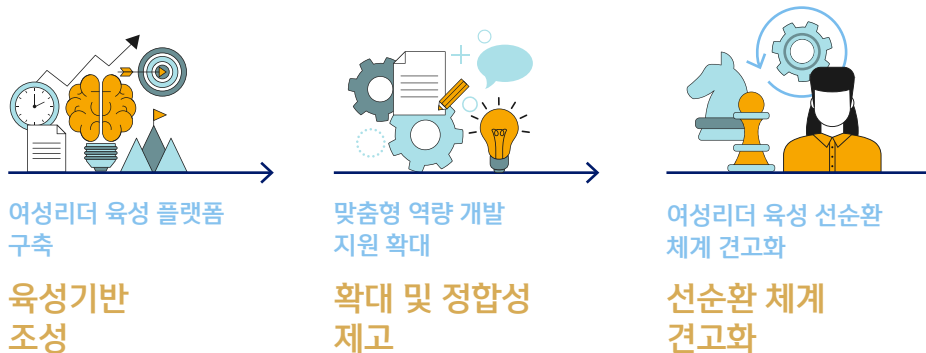
사회다양성 추구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고, 함께하기 위한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의 다양성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 기업은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3,300여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의 경우, 앞으로 상장하거나 기존 업체들이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이사를 소수자 계층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양성평등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2019년 국내 기업 최초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양성평등지수(GEI)¹⁾에 편입된 이래, 3년 연속 지수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사외이사진도 회계·법률·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재계 및 관료, 학계 출신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여기엔 여성 이사 1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중기 로드맵



¹⁾ GEI(Gender Equity Index): 양성평등지수

신한의 'SH', 여성의 'She', 영웅의 'Heroes'를 합성한 '쉬어로즈(SHeroes)'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성장의 꽃을 피워내는 여성리더를 뜻합니다. 2018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매년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육성된 인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그들도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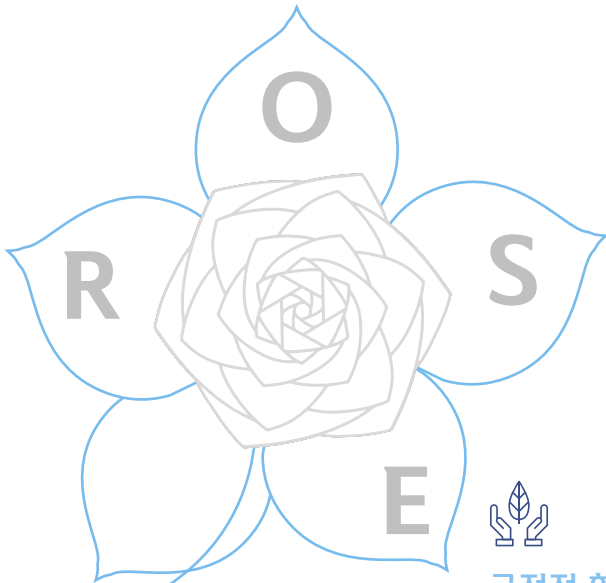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는 신한금융그룹의 앞선 양성평등 문화를 잘 보여주는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기회의 확대
Opportunity



관계 강화
Relationships



대상 세분화
Segmentation



긍정적 환경 조성
Environment



18명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신규 배출된 여성 임원·본부장 수

* 신한 쉬어로즈 1,2,3기 누적 (현직 기준)



“ 쉬어로즈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여성 인재로서 지닌 창의력과 감성, 공감과 소통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신한금융그룹 기업문화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다 증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나아가 성별의 다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축소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류정희
쉬어로즈 3기, 신한은행 센터장

건강하고 따뜻한 금융 생태계, 지속가능금융의 힘으로 가꿉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포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의 기조 아래, 포용적 금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는 이면에, 사회소의 계층의 교육격차 심화와 노년층의 디지털 금융소외가 사회 문제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끊임 없는 교육과 막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새롭게 선보인 신한카드의 '아름인 금융프렌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기부 플랫폼인 아름답인 금융프렌드는 개인정보 도용,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실제 발생한 피해사례를 이야기 형태로 소개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도 쉽게 익히고, 이를 통해 금융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령층 고객이 디지털 금융문화에 쉽게 접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바일 채널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객도 신한이 고객중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음성전환 바코드를 적용해 시각장애 고객의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의 금융 포용성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장애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은행 모바일 채널 쏘(SOL)에서 장애인 친화 영업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담 창구 예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인 금융프렌드는 발달장애인 등 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느린 학습자들이 금융 관련 피해를 입지 않게 돕는 홈페이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pecial Report의 '다양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AC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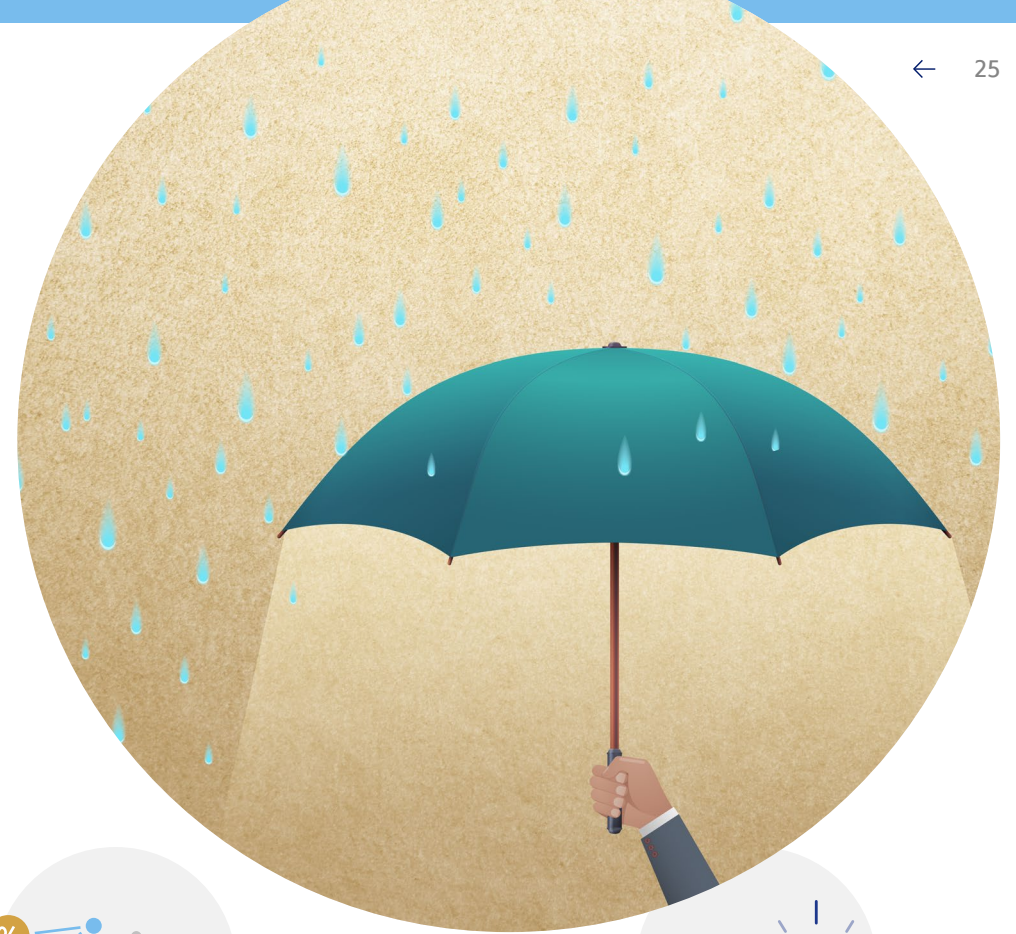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

2020년은 대한민국 금융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더욱 책임을 느낀 한해였습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일련의 사건으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품과 서비스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립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선제적 보상으로 고객을 살핍니다

2020년 8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고, 금융사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보다 앞선 2020년 5월, 이미 대형 증권사 최초로 해당 펀드의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했고, 신한은행도 6월 은행권 최초로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해결함에 있어 고객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 마련

2020년 5월



신한은행, CI무역금융펀드 일부 원금 선지급 결정

2020년 6월



신한의 소비자보호 현황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조직으로 더 변화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지탱할 조직적 토양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한 이후,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장인 CCO¹⁾가 상품 선정과 도입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최정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모든 가치에 우선임을 입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CCO를 선임하는 등 소비자 보호의 기준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상품 거버넌스를 더 확립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상품의 개발부터 출시, 판매,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고객의 니즈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예금상품협의회 및 비예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험등급이 낮은 상품은 부서장들로 이루어진 비예금상품협의회 선에서 출시가 결정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 같은 고위험상품은 그룹장들로 이루어진 비예금상품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품이라도 CCO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출시될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 전문가와 고객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묻고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¹⁾ CCO(Chief Customer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총괄임원
²⁾ CPO(Consumer Protection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촉촉한 그물망 심사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마련했다면, 상품을 판매할 때는 CPO 제도 등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22개 각 지역본부 별로 CPO를 배정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판매를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¹⁾'을 시행하여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투자상품 일시 판매정지 제도'를 신설해 상품 판매의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서류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품 가입 후 8 영업일 이내에 '사전 해피콜'을 실시해 판매자가 상품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고객이 원하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수행합니다. 신한은행은 상품감리팀을 신설해 투자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시감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모든 사모펀드 상품의 운용상황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디지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모펀드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이 고객 관점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¹⁾ 미스터리 쇼핑: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HOW

ESG WAY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신한금융그룹
ESG 전략이 특별한 이유는
'정량화', '객관화'에 있습니다.



신한 SVMF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

앞서 소개한 Zero Carbon Drive를 추진함에 있어 탄소배출량을 숫자로 정량화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그룹 자산의 탄소배출량까지 측정하여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이로운지, 목표한 곳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면,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판단할 안목을 높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11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와 사회공헌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도를 측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수행 중인 총 93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를 측정한 결과, 2019년 한해동안 약 7,600억 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사업, 상품, 서비스 등에 투입되었는데, 단순 기부금 사업보다 일자리 사업, 금융교육 사업 등에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신한 SVMF(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개발하였고, 2020년 글로벌 금융사 중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신한 SVMF를 고도화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ESG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한 SVMF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활동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는 '뉴딜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신한 SVMF가 제 기능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신한 SVMF를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도구로 업그레이드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ESG Way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ESG 경영에 있어 앞선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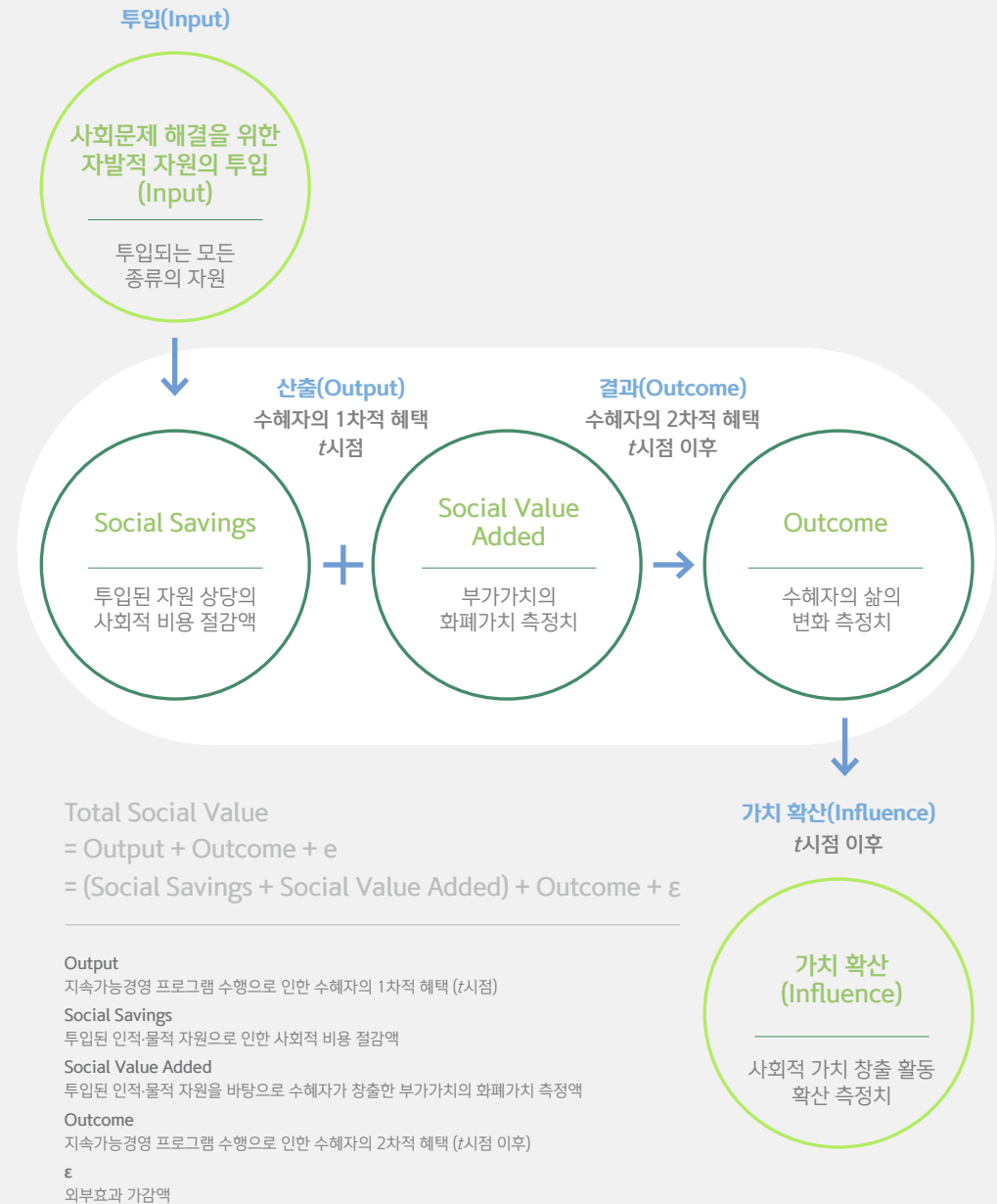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사 최초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진행한 것은 신한이 ESG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한 SVMF 개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신한금융그룹이 펼치는 ESG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였으면 합니다. 나아가 신한 SVMF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유용한 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호영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장

그룹 ESG(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 측정



HOW

ESG WAY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한이 하면 다른가요?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전략은
ESG와 늘 하나되어
움직여 왔습니다.

ESG 거버넌스

이사회에서 ESG 정기 안건을 다루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 전략과 목표를 ESG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 어떠한 기업보다 ESG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온 신한금융그룹은 ESG의 전략적 내재화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게 있어서 ESG는 잠시 머물다 가는 유행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역사를 관통하는 신념이자 경영철학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서 ESG를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회책임경영위원회(현 ESG 전략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ESG를 그룹의 전략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특히, 그룹의 중기전략인 'F.R.E.S.H 2020s'¹⁾의 한 축을 'Sustainability(지속가능)'으로 정하고, ESG가 그룹의 전략과 통합되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그룹 주요 전략과제에 ESG를 반영하는 논의를 통해, 2019년부터 그룹 CEO 뿐 아니라 전 그룹사 CEO를 대상으로 ESG성과를 평가체계(KPI)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와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2019년부터 17개²⁾ 그룹사별로 CSSO³⁾와 ESG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이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ESG 관련 워크숍과 외부 강연을 진행하였고, 위원장이 직접 기관 및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 신한금융그룹의 ESG 활동과 추진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ESG 경영 추진에 있어서 신한인의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기존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ESG 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룹 CEO 주관 그룹사 전체 CEO가 참여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ESG를 위한 구동체계를 완성했습니다.

¹⁾ F.R.E.S.H 2020s: 'Fundamental(질적 성장), Resilience(회복 탄력성), Eco-system(디지털 생태계), Sustainability(지속가능), Human-talent(인적 역량)'으로 구성된 신한만의 차별적 성장 방법론

²⁾ 2019년 기준 신한금융그룹 전체 그룹사 수

³⁾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전략과 지속가능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

INTERVIEW

“ 엄중한 상황일수록
금융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

이운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ESG 전략위원회 위원장

* 2021년 2월 연재



Q 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근래 ESG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금융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A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정지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류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탱해온 경제적
풍요의 기초가 몹시 허약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생태계는 너무
파괴되었고, 지구적 재앙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와 부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기존의 시스템과
행태로는 계속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급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금융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금융부문은 스스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함은 물론,
금융의 기능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른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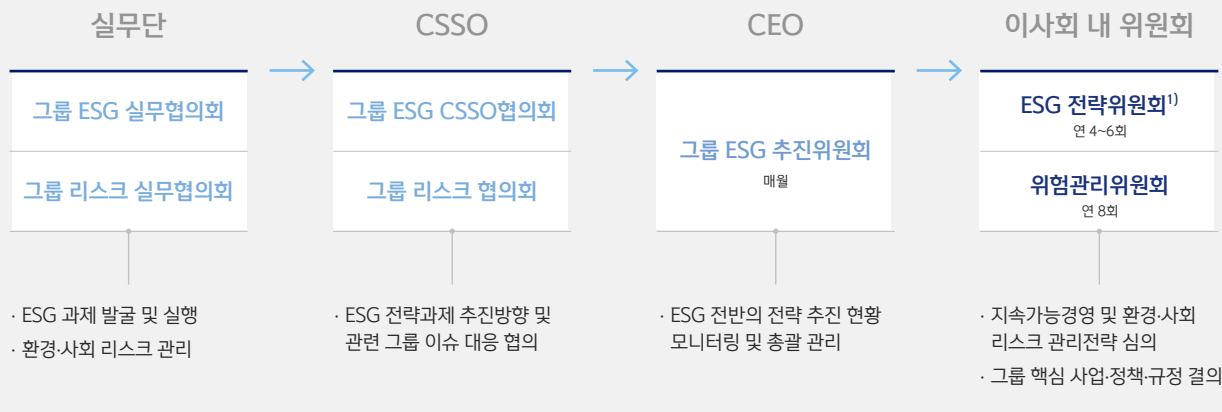
Q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까? 신한이어서 가능한, 신한이기에 다른 활동의 대표적 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신한금융그룹은 이 책무에 충실하게 ESG 개선노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며 그룹의 ESG 개선활동을 주도합니다.

이사회는 기본전략과 실행체계를 확정하고, 경영진은 CEO의 지휘 하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특히 그룹사들이 그룹 차원의 ESG 전략을 일관성 있게 이행하도록 각급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ESG 전략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19년 '신한금융그룹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결의하였고, 원칙에 대한 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에는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ESG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속화하려는 ESG 전략위원회의 의지를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신한의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한의 ESG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신한의 올바른 ESG 추진을 지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진정한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한의 ESG(지속가능경영) 구동체계



¹⁾2015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신설한 ESG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 (구 사회책임경영위원회)

DESTINATION

ESG WAY

그 여정의 끝이 다다른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한금융그룹 ESG Way에서 목적지의 좌표 값은 '0·10·100'입니다.

각 좌표가 뜻하는 것은 신한이 지속가능한 금융, 'FINANCE for IMPACT'를 통해 다다르고자 하는 지향점입니다.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탄소 0(제로) 사회,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10개의 유니콘기업 양성, 신한과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100% 만족을 뜻합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신han을 지켜주는 든든한 백신, ESG!

신han에게 있어 ESG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2020년, 신한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ESG 2.0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를 ESG 3.0 백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별화 된 ESG 사업모델을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룹 ESG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목적지를 향해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신han(新韓)이라는 이름처럼,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ESG는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ESG Way를 개척해 온 신한금융그룹도 새로운 길 위에 서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신han이니까 가능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신han이니까 가능한' 금융의 힘으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에 먼저 발을 내딛고, 바른 길을 찾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0·10·100'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탄소 0(제로) 사회

10개의 유니콘기업 양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100% 만족

ESG INVITATION LETTER



신한의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조용병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신한 ESG Way,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지면을 빌어 여러분들께
‘ESG 프로포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의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 또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며,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ESG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룹의 모든 CEO들과 함께 회의하며
‘ESG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는 백신과도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2021년에는 친환경, 상생, 신뢰라는
세 가지 큰 전략방향을 가지고 5대 핵심과제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신한만의 차별화된 ESG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신한은 국내 경제의 ESG 전환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린스완(Green Swan)으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ESG 리스크 요인은 국내 발전회사를 비롯한 제조 기업 고객들에게는
직접적인 사업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신한은 ESG 기반의 변화를 시작하는 모두를 돕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한이 누구보다 먼저 ESG를 이해하고
핵심 사업 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신한은행에 처음 입행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새롭게, 알차게, 따뜻하게'라는 창업 정신을 체화하여,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역사가
ESG와 맞닿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처럼,
신한금융그룹의 ESG는 함께 그리고 지속되어야 할 긴 여정입니다.
신한만이 혼자서 갈 수 없으며, 그 길 끝에 놓여있는 '0·10·100'이라는
ESG Way의 야심찬 목적지 또한 신한 혼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신한인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께 고백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신한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걷고 또 같이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지속가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드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ESG Way,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 37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 38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 39 ESG 이니셔티브
 - 41 TCFD 보고서
 - 52 다양성 보고서
 - 54 코로나19 대응
 - 56 ESG 테이블

SPECIAL REPORT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신한금융그룹 지향점	一流 신한		
ESG 원칙	FINANCE for IMPACT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금융의 선한 영향력		
전략방향	친환경	상생	신뢰
5대 Impact 과제	Zero Carbon Drive 탄소배출량 감축과 상쇄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Zero)화 추진	Triple-K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한 국내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Hope Together SFG 금융의 업의 본질 및 효과를 살린 사회공헌사업 추진	사회 다양성 추구 여성 리더 육성 및 장애인, 다문화 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축소 고객보호 관리 강화 고객보호 관리 강화 및 全 세대 금융 교육 확대를 통한 신뢰경영
지향점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 0 Carbon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10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10 Unicorns	그룹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100%로 만드는 100% Satisfaction
UN SDGs 연계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3 CLIMATE ACTION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 NO POVERTY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10 REDUCED INEQUALITIES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신한금융그룹은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ESG 요소를 전략과제에 통합·관리함으로써 ESG 3.0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ESG 이니셔티브

신한금융그룹은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서의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우수 사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금융과 연계한 글로벌 ESG 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신한이 발걸음

Global Recognition



8년 연속 DJSI World 편입
(국내 금융사 최초, Asia Pacific 12년)



2021년 BGEI 3년 연속 편입
(국내기업 최초)



9년 연속 Global 100 선정
(국내기업 최다 연속 수상)



2020년 6년 연속 통합 A+등급
(2015~2020)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7년 연속
(국내 금융사 최초)



2020년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중
AA 획득 4개 기업 중 편입
(국내기업 최초)



5년 연속 AA등급 획득

Global Initiatives

				
<p>2007년 3월 가입 2018년 명예의 전당 입성</p> <p>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p> <p>환경보고 및 위험 관리를 비즈니스 표준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공개 및 행동을 유도</p>	<p>2008년 1월 가입</p> <p>UNEP FI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p> <p>유엔 환경 계획과 금융부문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	<p>2008년 5월 가입</p> <p>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p>	<p>2018년 9월 가입</p> <p>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p> <p>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p>	<p>2019년 9월 가입</p> <p>UNEP FI PRB UN 책임은행원칙</p> <p>파리기후협약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은행권이 추구해야 하는 원칙</p>
				
<p>2020년 2월 가입</p> <p>UNEP FI PSI UN 지속가능보험원칙</p> <p>운영전략, 리스크 관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요소를 접목</p>	<p>2020년 9월 가입</p> <p>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p> <p>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p>	<p>2020년 11월 가입</p> <p>PCAF 탄소회계금융협회</p> <p>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공개하기 위한 회계표준 개발</p>	<p>2020년 11월 가입</p> <p>SBTi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p> <p>과학에 기반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1.5°C 및 2°C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 Tool 공개</p>	<p>📍 국내 업계 최초 📍 국내 최초</p>

TCFD 보고서



TCFD 권고안

TCFD¹⁾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5년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주도로 창설되었습니다.

해당 권고안을 통해 일관성 있게 기후 관련 위험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녹색금융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기후 및 환경적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37개 국 약 1,500개 기관이 TCFD 서포터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위험 관리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지표 및 감축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 목표



¹⁾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신한금융그룹 TCFD 이행 현황

신한금융그룹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신한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TCFD 지지를 선언한 이후,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TCFD 보고서 또한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최초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1 지배구조

Zero Carbon(탄소중립)을 위한 과학 기반의 정량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체계 구축

이사회
ESG 전략위원회¹⁾
위험관리위원회

CEO
그룹 ESG 추진위원회

전담임원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그룹사 ESG CSSO협의회

실무 책임자
그룹 ESG 실무협의회
그룹 리스크 실무협의회

전담부서
지주, 은행, 카드 등
ESG 담당 전담조직 신설

2 전략

금융사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략 'Zero Carbon Drive'

UNEP FI의 TCFD 이행 2차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환경/사회 리스크 모범기준 운영

그룹 기후변화 대응원칙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TCFD, CDP, PRB(책임은행원칙), PSI(책임보험원칙), SBTi(과학기반목표수립),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3 위험 관리

기후 변화 관련 물리 및 전환 리스크, 기회요인 분석 실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기후변화 관련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 12개 환경/사회적 유의영역 선정
-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 금융 배제, 조건부지원정책 등 운용
- 대규모 개발 PF에 대해 위험등급 구분하여 영향평가 후 필요 시 금융계약에 저감계획 반영

기후변화 관련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및 관리 방안 수립

4 지표 및 감축 목표

Zero Carbon Drive 목표

- 감축
2030년까지 내부 탄소배출량 46.2%,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8.6% (2019년 대비)
 - 상쇄
친환경 금융 실적 2020~2030년 신규누적 30조 원
-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반영한 투자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기준

¹⁾ 2015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신설한 이사회 내 위원회(舊 사회책임경영위원회, 2021년 3월 주주총회 이후 최종 명칭변경 확정 예정)

1 지배구조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에 국내 금융사 최초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회책임경영위원회(現 ESG 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을 심의하고 결의해왔습니다.

2019년 금융사 최초로 전 그룹사에 전략과 지속가능 담당임원인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임명하고 ESG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 그룹사 CEO 대상의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기후변화 관련 그룹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상세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Zero'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Zero Carbon Drive 전략을 통해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하고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위해 SBTi 방법론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PCAF(탄소회계 금융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탄소배출량 측정을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2 전략

기후변화 기회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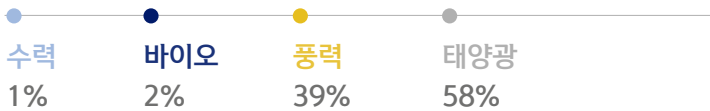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생태계 전반에 위치한 친환경 전환으로의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 신한은 실제 탄소 상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 대응 기회영역을 발굴하였습니다. 탄소배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탄소상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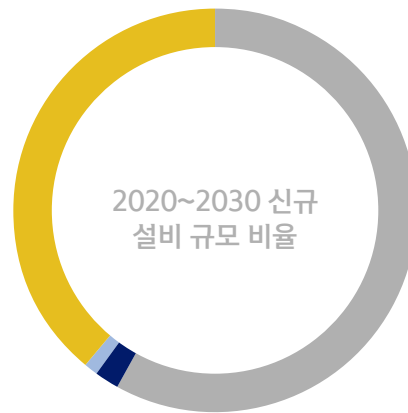
2 전략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에 따른 상쇄 시나리오 분석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금액당 탄소배출 상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Zero Carbon Drive의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배출 상쇄 효과 산정 과정 및 근거



상쇄 재생에너지 기술 선정 근거

억원 당 설비 규모 (MW)	×	연 발전 시간 ¹⁾ (h)	=	연 발전량 (MWh)
연 발전량 (MWh)	×	전력배출계수 ²⁾	=	억원 당 탄소배출량

¹⁾ 일조량 등을 고려한 발전 가능 시간
²⁾ 1MW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위험요소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여 탄소 상쇄 기여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는 타 사업 대비 사업 규모 및 감축 효과가 크며, 사전 탄소배출 상쇄 효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기회요인 선정 배경

-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효과가 있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규모 및 감축 효과

- 사업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음
- 에너지효율 사업이나 연료 전환 사업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월등히 높음

감축 효과 추정

- 측정이 가능하고, 탄소 상쇄량과 투자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감축 효과 추정이 용이함

3 위험관리

리스크 정의

전환 리스크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의 손실 증가 또는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 등 (은행, 금융투자, 생보사 등)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 장기적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실물부문의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

침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의 하락 (은행, 금융투자, 생명 등), 기후 관련 질환 증가 등에 따른 보험 지급금 규모 증가(생보사) 등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 필요시 경감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관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환경·사회 리뷰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 환경·사회 리뷰를 실시하고, 리뷰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며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프로젝트 개요 파악
- ②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등급 분류
- ③ 환경·사회 영향 평가 등을 참고하여 환경·사회 리뷰 실시
- ④ 필요 시 경감대책을 금융계약에 반영
- ⑤ 사후 모니터링

적도원칙

2020년 9월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습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란,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 필요 (A ~ C 등급)
- ② (등급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 관리시스템 구축 / 액션플랜 수립 / 모니터링 검증
- ③ 금융 약정서 반영 (합의사항 준수 등) / 적도원칙 이행 현황 정기 보고 / 정보 공개

향후 계획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및 관리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요인 반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Zero Carbon Drive 추진을 위해 탄소 배출량/집약도 등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식별

그룹사별 배출량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그룹사별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탄소집약도, 고탄소배출 섹터/업체 배출량, 익스포저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환경·사회 측면의 유의영역 모니터링

* 12개 유의영역 산업: 광업(중금속 수질오염), 담배(아동노동/보건), 유망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인프라(대기오염/토착민이주), 무기·군수(대량살상), 발전(대기오염/방사능), 임업(수질오염/생태계파괴), 작물생산(토양/수질오염), 석유정제(해상오염), 석탄가공(대기오염), 폐수 및 폐기물처리(수질오염), 화학물질 제조(유해물질)

향후 계획

리스크 대시보드를 통한 사전적 알람

모니터링 지표(배출량, 집약도 등)가 큰 폭으로 증가 시 신호등 체계를 통한 사전 알람



기존 리스크 대시보드 내 통합 관리

3 위험관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그룹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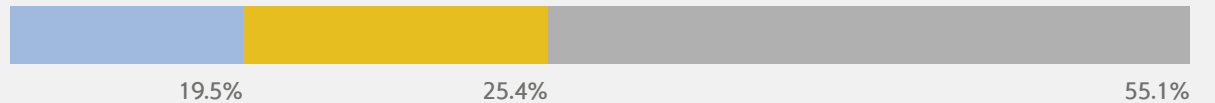
- 고탄소 배출업종의 경우, 미래 탄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전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한금융그룹은 S&P Trucost와 함께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함
-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¹⁾를 감안한 2019년 기준 그룹 포트폴리오 내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탄소비용은 1.16조원 수준(2030년)이며, 추가 탄소비용을 감안하면 해당 업체들의 EBITDA 마진²⁾이 하락할 것으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알 수 있었음
- 특히, 주요 고탄소 업종 내 업체가 현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업체가 마진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Trucost
ESG Analysis
S&P Global

2030년 주요 고탄소 배출업종의 탄소비용 영향 시나리오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이내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초과
- 추가 탄소비용에 따라 마진이 마이너스로 전환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



¹⁾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상 가격을 활용하여 Trucost에서 시뮬레이션 (2°C 시나리오에 기반)

²⁾ 매출액 대비 EBITDA 비율

3 위험관리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과정 중 환경·사회 리뷰 및 계약 반영 사례

○○ SRF¹⁾ 발전사업 사례

개요

전라남도 **군 일원에 SRF 생산설비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생산한 SRF와 외부조달한 SRF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

환경 이슈

2019년 하반기 본 사업의 금융자문을 주선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함

환경·사회 리뷰 의견

- 위험정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 이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저감대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장 운영
- 환경·사회 이슈
본 사업의 관리운영 업체에 법령준수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별도의 운영책임확약서 작성 및 사업계약에 반영



환경·사회 리뷰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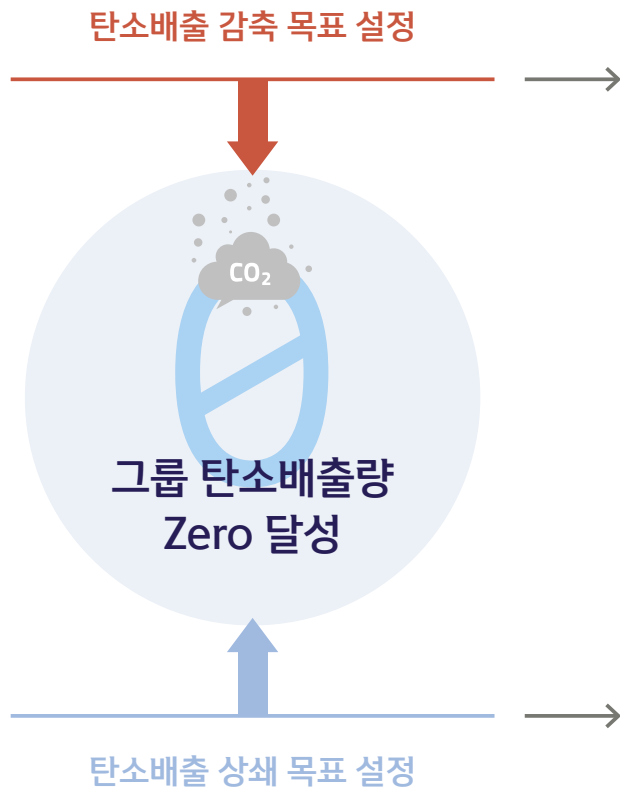
- 진행경과
2020년 2월 ***, *** 두 회사가 본 사업의 EPC/O&M 수급인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중임
- 수급인의 프로젝트 관리의무 부과 (아래와 같이 계약상 환경관련 조건 반영)

수급인들의 계약상 이행의무 사항

-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및 관련 대관 업무
- 품질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 안전 및 환경계획(HSE Plan)의 수립, 준수 및 그에 따른 관리업무의 수행

¹⁾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 고형 연료, 가연성 쓰레기 등을 선별, 파쇄 및 건조한 화석연료의 대체연료

4 지표 및 감축 목표



그룹 탄소배출량 관리

파리기후협약(2°C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틀을 활용한 감축 목표 수립 (SBTi¹⁾ 1.5°C 및 SBTi SDA²⁾ 2°C 시나리오)

내부 탄소 배출량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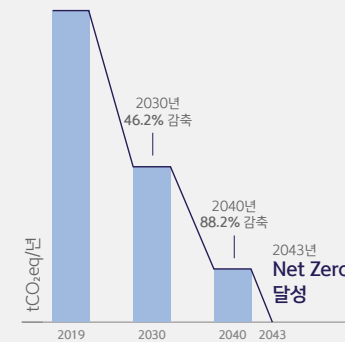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8.6%

(201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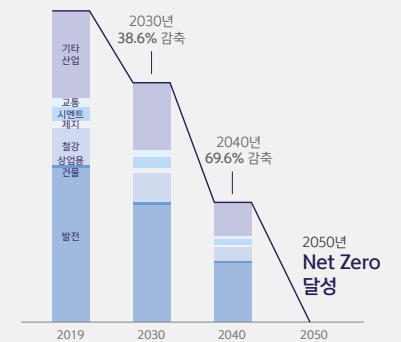
내부 탄소배출량

SBTi 1.5°C 시나리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SBTi 2°C 시나리오



¹⁾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적 시나리오(파리기후협약)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²⁾ SBTi SDA(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산업별(발전/부동산/철강/시멘트 등)로 분류하여, 산업별 시나리오에 따라 감축 목표 산정

친환경 자산 규모 확대

- 친환경 新성장동력 발굴
 - 친환경 新기술 투자/기업 발굴
 - 재생에너지 Equity 투자 확대 등
- K-Taxonomy 반영한 실적 관리 예정

친환경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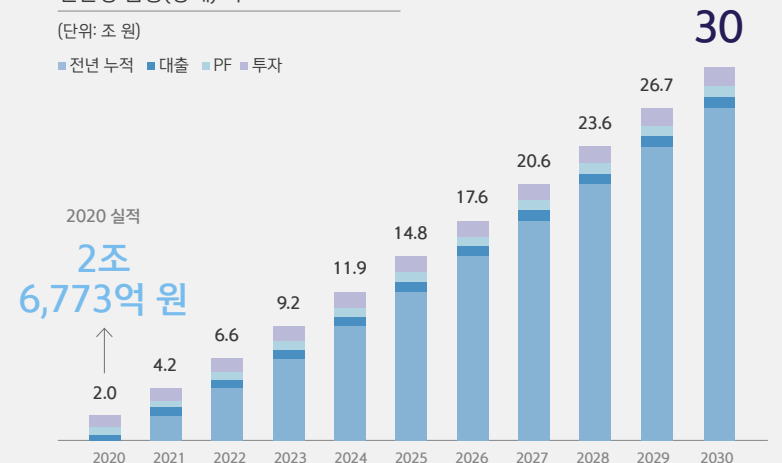
30조 원

(2020년~2030년 신규 누적)

친환경 금융(상쇄) 목표

(단위: 조 원)

■ 전년 누적 ■ 대출 ■ PF ■ 투자



* 상쇄 목표는 태양광/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PF 비중이며, 감축 노력 없이 탄소배출량을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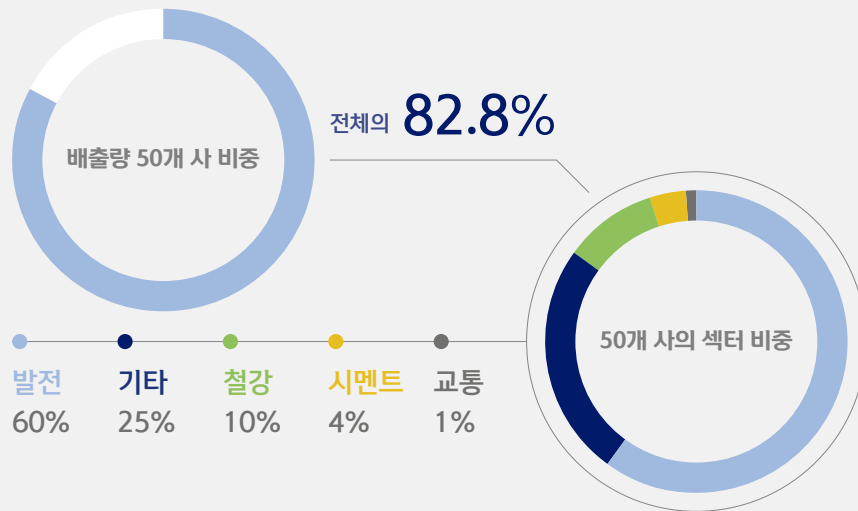
4 지표 및 감축 목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관리 방안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업의 산업 섹터별 탄소배출량과 탄소집약도 분석을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고 탄소배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비중 분석

- 탄소배출량 상위 5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82.8%이며, 그 중 발전 섹터가 60%를 차지
-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의 총 배출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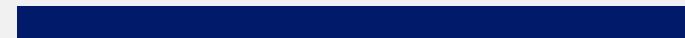
탄소집약도¹⁾ 상위 기업의 효율성

- 탄소집약도 상위 10개 / 상위 50개 기업 중 '시멘트, 발전' 섹터 기업 다수
- 집약도 상위 기업의 탄소집약도는 총 평균 대비 15~25배²⁾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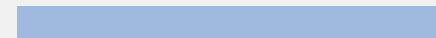
탄소 집약도 현황

(단위: tCO₂eq/억원)

Top 10



Top 50



Total



0 200 400 600

탄소배출량/탄소집약도 상위 기업 및 발전 섹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의 관리 효과 제고

탄소배출 및 탄소집약도 상위 기업의 친환경경영 전환 기회 발굴

그룹사별 탄소집약도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여신 및 투자이사결정 시 주요 검토 항목으로 반영

¹⁾ 생산량, 매출, 투자 등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의미 (여기서는 투자 1억원당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의미)

²⁾ 시멘트 섹터의 경우, 신한 자산 포트폴리오 내 발전 외 그룹의 주요 섹터로 관리

다양성 보고서

다양성에 대한 정의

신한금융그룹에서의 다양성

신한은 다양성 및 포용성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정책 및 추진(ESG기획팀), CSR 업무 추진(브랜드홍보본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신한리더십센터) 등 담당 조직과 그에 맞는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예방위원회, 직장내 괴롭힘예방위원회, 고충처리위원 및 절차, 직원행복센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조직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양성 관련 가치 창출

- 2021년 국내 최초로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GEI)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 2019년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신한은행,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신용정보)

고객 다양성 지원

신한 여성기업 성공지원대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여성기업 성공지원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중입니다. 이는 2016년에 출시되어 꾸준히 여성 CEO의 다양한 꿈을 지원해왔습니다.

개요 여성 CEO가 소유하거나 경영중인 여성기업 또는 가족친화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 지원하는 대출

내용 최대 1% 이내 금리 우대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속 회사 등 0.3% 금리우대 포함)

실적 총 652건 2,781억 원 지원 (2020년 12월 말 기준)

이와 더불어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금융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금융생활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스윗 설립을 통해 카페 공간 제공 및 사업운영 후원과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

조직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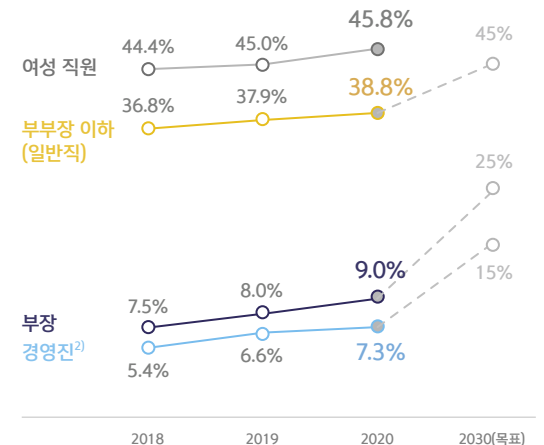
이사회의 분야 다양성

신한금융지주의 이사회 13명의 8개 주요 전문 분야 및 경력은 경영, 글로벌, 금융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을 선보이며 더 나은 신한금융그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와 리스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신한금융그룹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 및 목표¹⁾

신한금융그룹은 여성 임직원 비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역량 확장을 위해 역량 증진 프로그램도 시행하며 여성 인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¹⁾ 8개 그룹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리프트,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기준

²⁾ 임원 및 본부장

다양성 확산을 위한 그룹 문화

여성인재 육성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ores)를 출범해 리더 발굴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사장 이상 직급 143명(누적)을 선발하여 멘토링, 아카데미 등 리더역량 강화를 지원,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 육성 성과를 공유
- 1기 27명, 2기 49명, 3기 67명 선발
- 향후 여성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Career Development Program 관리, Fast-Track 제도 활용, 여성리더 전략적 발탁 확대를 통해 실질적 여성인재 육성에도 힘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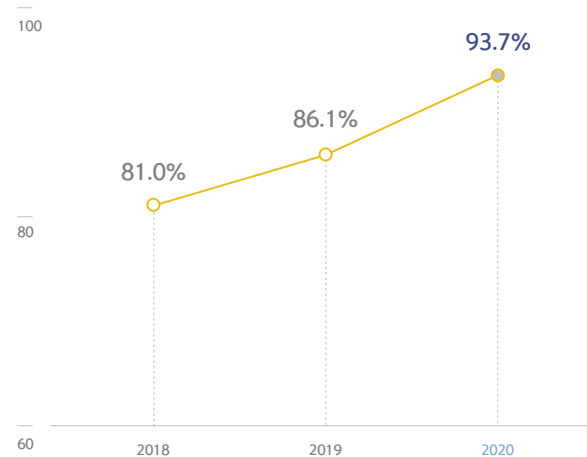
그룹은 여성인재 육성원칙(R.O.S.E)과 육성가이드를 배포하고 회사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물론 육성노력과 성과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그룹사별 육성 중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역량 있는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직급별 프로그램, 리더십 연수, 코칭 프로그램, 경영진 간담회 등 회사별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중
- 예비 여성리더 대상 그룹사 특화프로그램: 신한 SHeroes Blue(은행), S-Diva(카드), S-Wing(생명), Sai-Salon(아이타스) 등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및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친화적인 회사로서 여성 직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별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하는 한편, 5일 연속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블록휴가 제도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육아휴직에서 복직 시 12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비율



가정 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 임신기간 근로단축, 태아검진 휴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시행
- 가족 돌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초등학교 입학자녀 10시 출근 제도, 스마트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제도 시행

코로나19 대응

신한금융그룹은 인류의 보건 및 건강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 그룹 차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과 함께, 그룹사 별로 추가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종합대응체계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위기상황 종합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각 그룹사 내 주요 부서들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CRO(Chief Risk Officer)가 주관하고 본부 주요 20여개 부서가 참여하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적시에 가동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위기상황의 면밀한 대응을 위해 본부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종합대응반을 매주 운영하였으며 고객자산, 유동성, 여신운용, 고유자산, 글로벌, IB부문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영업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운영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재난 시나리오 별 임직원 행동을 정립하고 대응 체계를 수립·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단기 비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직무자를 본사와 대체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분산근무 시행, 재택근무 확대 등 재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그룹사에서 팬데믹 상황에 따른 리스크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직원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직원, 직원가족, 고객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초등학교 입학자녀 10시 출근 제도, 스마트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ZOOM,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2020년 총 6회에 걸쳐 7,64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시행과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면접촉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본사 출입절차 강화, 업무 분산 및 재택근무 환경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Smart Office 인프라 구축, 본사/지역 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회의실 및 화상전화 등과 같은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한 N.E.O 프로젝트 시행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N.E.O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 금융 지원, 신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의 3대 핵심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경제 인프라 강화, 디지털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산업/금융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조 5,740억 원

혁신/뉴딜 중소기업 대상 대출

6,562억 원

뉴딜 투자 부문

5,499억 원

혁신 투자 부문

* 2020년 말 기준

코로나19 대응 현황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객, 소상공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다양한 그룹사에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이자납입 유예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지원한 이자납입 유예금액은 총 67억 원에 달합니다.

신한은행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Quick 정산 서비스 시행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대응 전략 영상을 공개
- 자동차부품 기업 협약보증·신용(기술)보증기금 및 창업 벤처기업 특례보증
-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 지원을 위한 비대면 Untact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지원 관련 대출의 비대면 완결 프로세스 구축, 비대면·유선 연기 약정기준 신설, STAB 화상상담 서비스, 비대면 기업 신상품 출시 등)

신한카드

- 국민 소비 진작 차원, 행정안전부·다수 지자체 대상 카드 소비 모니터링 Data 지원
- '신한Day'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대규모 공동 마케팅 진행

코로나19 피해고객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혹은 예외기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구제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한금융그룹: 취약계층의 식문제 해결을 위한 '동네나눔밥집' 사업 진행
- 신한은행: '희망의 도시락',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 신한자산운용: 구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글로벌지속가능ESG펀드' 출시

2020년 코로나19 지원 목적 ESG 채권 발행

(단위: 십억 원)

	발행일	발행금액	비고
신한금융지주	07.10	586.8	외화채권 USD 5억
신한은행	03.10	59.6	외화채권 USD 5천만
	09.29	332.5	외화채권 AUD 4억
신한카드	05.27	100	
	10.15	458.2	외화채권 USD 4억

* 외화채권 환산기준: 발행일 최종 환율

소비촉진 활동

전 그룹사의 대국민 소비촉진 활동 실시를 통해 가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직원 간 꽃 전달 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 제주은행: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은행 본점 인근 골목상권 음식점 이용
- 오렌지라이프: 화훼농가 지원, 헌혈 캠페인, 마음 면역력 증강 캠페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원들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럼 개최

사회적 기부

와디즈와 소셜 펀딩 'Hope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그룹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 2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모으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및 기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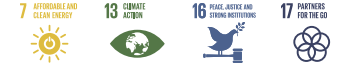
- 신한금융그룹: 전 그룹사 대상의 Hope Together 캠페인 펀딩, 신한 Meal Box 전달
- 신한은행: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 극복 기부금 50억 동 (한화 2억 5000만 원)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억 원 전달
- 신한생명: 소외 아동을 위한 컴퓨터 100대 지원, 재래시장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후원

ESG 테이블

각 활동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와 상반기 말에 발간될 신한금융그룹 2020 ESG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측면으로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UN SDGs
연계



ENVIRONMENTAL

ZERO CARBON을 향한 친환경 금융 체계 구축

01 녹색금융

- 전용 및 보증 대출/인프라 PF 확대
- 에너지/친환경수단 투자
- 녹색 채권 발행
- 친환경 소비 촉진 (신한카드)

02 환경 리스크 체계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관련 그룹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 적도원칙 운영 (신한은행)

03 친환경 정책

- Zero Carbon Drive 선포
- 기존 ECO Transformation 20·20의 전환
- 그룹 기후변화 대응원칙 수립

04 환경경영 추진

- 녹색경영시스템 개발/운영
- ISO 14001 인증 획득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신한캐피탈)
- Paperless 환경 구현

05 친환경 리더십

- UNEP FI 책임은행 및 지속가능보험원칙
- UNEP FI GSC 아시아태평양 Banking 부문 대표
- SBTi, PCAF 가입을 통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추진

06 환경정보 공개

- TCFD 지지 선언 및 권고안 참여 재무 관련 정보 공개 중 (2018~)
- CDP 7년 연속 Leadership A

• 국내 금융사 최초



각 활동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와 상반기 말에 발간될 신한금융그룹 2020 ESG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CIAL

혁신/포용 금융 등 사회를 위한 지원 및 창의적 열린 문화

UN SDGs 연계



01

혁신 금융

- '혁신금융 추진위원회' 출범
- 'Triple K 프로젝트' 실시
 - S² Bridge(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한 생태계 구축
- 벤처육성 프로그램 '신한퓨처스랩'
- 벤처 플랫폼 '이노톡'

02

포용 금융

- 서민 중금리대출 선도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SOHO)
-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판매 플랫폼 (올댓쇼핑)

03

취약 계층 지원

- 저신용자 재기 지원 (청년 부채 케어, 교육수당)
- 경력단절 여성/자영업자 지원사업 등

04

성장 지원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청년 해외취업, 일터학교, 청년/시니어 일자리 지원
- 사회적 기업 펀드 투자
- 교육지원 프로그램
 - 금융교육, 희망학교 SW교실, 신한 음악상, 장학사업 등

05

다양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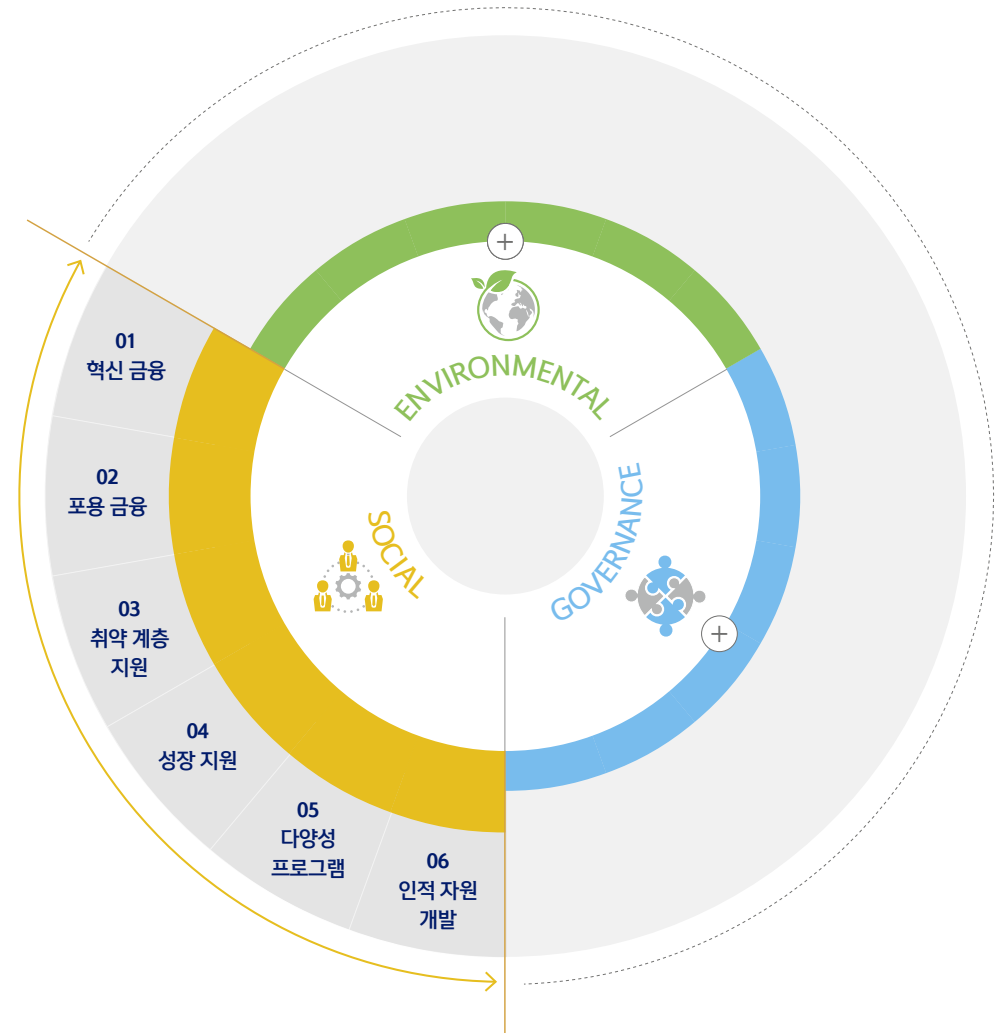
- 그룹 여성리더 육성 체계 구축
-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그룹 어린이집, 단축근무 등)
-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편입

06

인적 자원 개발

- 맞춤형 전문가 육성
- 디지털 인재 양성
- 모바일 사내교육 플랫폼 운영
- 사내 벤처제도 실시

● 국내 금융사 최초



각 활동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와 상반기 말에 발간될 신한금융그룹 2020 ESG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VERNANCE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체계화 및 윤리/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원칙 강화

UN SDGs
연계



01 이사회 차별성

- 이사회 전문성 강화
 - 전문성 보유 사외이사 구성 명문화
 -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
- 이사회 다양성 확보
 - 국적/성별/연령 다양성 원칙 수립
 - 사외이사 후보 주주 추천 공모제
 - 여성 이사 후보군 최소 20% 확보

02 리더십 안정성

- 경영승계 구조 체계화
 -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육성
- 임원후보 추천권한 분산

03 ESG 거버넌스

- 그룹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 구축
 - ESG 전략위원회(舊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ESG 추진위원회(그룹사 CEO)
 - 그룹 ESG CSSO/실무협의회
-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SVMF) 개발/운영
- 스텔어드십 코드 도입/운영

● 국내 금융사 최초

04 윤리/준법

- 그룹 준법감시인 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 윤리강령/행동기준/내부자 신고제도
 -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 윤리/준법 교육 활성화
- 자금세탁방지 체계

05 고객 보호

-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 소비자보호그룹 신설, 금융상품 ESG 점검 제도, 옴부즈만제도
- 정보보안 체계 구축
 - 그룹별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
 - 고객정보/개인정보 처리방침
 - 통합 보안관제 센터

06 인권

- 협력회사 상생원칙/행동규범
- 스마트한 근무환경 확립
 - 스마트 및 유연근무제 확대
 - PC 셧다운 제도 도입
 - 임직원 인권 보호
 - 임직원 마음건강 검진, 인권선언서 등

